



報 會 同 窓 總 士 空

發行人：韓周奭
編輯人：姜榮植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郵便)：156-02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非資品)

회보 인덱스

2 항공전략사상과 미래전(II)

3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

4 「보이지 않는 손」

5~7 空士總同窓會 消息

8 母軍·母校 短信

9 會員動靜

10 會員寄稿

11 사무기의 선두, 밀레니엄 OA의 새로운 장을 창조한다

12 여행안내

新 年 辭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員 여러분!

새 천년 새 아침을 맞이 먼저 會員 여러분의 旭日昇天과 家内の 幸福을 誠心으로 祈願합니다. 우리가 20세기와 21세기를 통시 到目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慶이로써 祝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적 사고로 보면 지난 20세기는 險難한 極點의 시대였고 새로운 21세기는 苦難하기 甚한 急變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적인 사고로 보면 지난 세기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忍耐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세기는 부화한 새가 힘차게 飛翔하는 歡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하늘로, 우주로」라는 구호가 現實感있게 느껴지는 시대가 到來한 것입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는 우리 공군이 國家 安保의 核心이 되고 우리 星武人이 국가 발전의 牽引車 役割을 맡게 될 것입니다.

21세기가말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고 다짐했던 우리 星武人이 플러스적인 思考와 行動으로 世界化, 專門化, 情報化, 新知識 人化의 새 시대를 先導해야 할 때라고 確信합니다.

星武人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한 나라의 價値는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價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星武人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發展을 이룩할 때 空軍의 發展이 이룩되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發展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맨 처음 空軍士官學校에 入校했을 때의 感激과 覺悟를 되살립니다. 少尉로 任官하던 때의 意慾과 自信感을 되살립니다.

역사학자 "람케"가 말했듯이 狀況은 달라도 本質은 동일합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세기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初心입니다. 溫故而知新과 日新日又日新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열어 나갈 話頭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온 確固한 비전과 挑戰精神, 名譽와 忠誠, 信義와 責任, 正義와 率先의 德目이야말로 다음 세기까지도 通用되는 價値尺度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제20대 空軍參謀總長으로 在職하는 동안 "산뜻한 空軍, 生動하는 空軍,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強한 空軍 育成"을 提唱했었습니다. 이는 21세기 戰略型 공군 건설의 礎石을 놓고자 하는 一念의 發露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상 과제가 現役들만의 몫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군에서 靑春과 情熱을 다 바쳤던 선배로



會長 韓周奭(7기)
제20대 공군참모총장
(現)培材大學校 兼任教授

서 우리 星武人이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後輩들이 마음놓고 任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物心兩面으로 支援하고 激勵과 聲援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先輩가 해야 할 바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아닌 눈에 보이는 參與가 더욱 切實한 이유입니다. 星武人 모두가 새로운 決意와 覺悟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參與합니다.

뉴 밀레니엄의 莊嚴한 태양을 바라보며 參與하는 星武人, 後輩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星武人, 한마음 한뜻으로 새 시대를 先導하는 星武人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의 發展을 위해 積極的으로 애써준 각 기별 同期會長과 任員 그리고 會員 여러분께 감사를 表하며, 會員 여러분 모두의 健康과 發展 그리고 家庭에 和睦과 幸福이 充滿하기를 거듭 祈願합니다. ◆

기밀레니엄 다이아몬드

정 해 정(一기)
편집장(대우)편

위원장단한 밀레니엄 스토리

2003 캐럴파리 다이아몬드

이 두들수북 밀레니엄 보석 밀레니엄의 자과

광활하든 석재의 황홀한 파노라마

하트 모양의 Cut 카부석과

수수한 명도(Clarity)가 투명한

영구적인 밀레니엄 보석

세계인의 제 1선보인 새 천년의 보석

그러나 동쪽쪽 모퉁이 아련의 나라 한반도 허리의

금강성으로 縮略한 金剛山의 意氣를 아시나요?

億劫으로 삼이 안된 無盡藏 캐럴과 다이아몬드의

4 계절 이름이 다른 各山의 旖旎한 색깔과

사람이 울려 퍼질 수 없는 美麗한 Cut

그리고 수수한 무명화의 透明(Clarity)

그저 情을 잃지 않는 리프도

할 말을 잃으니 諸사람이 제 모습을 만나지요

반세기가 지나도록

분단의 나라라고 비유지만 마시누려

북명과 悽運의 共同인 北南의 共同

그래도 새 밀레니엄의 共同의 共同

함양한 共同의 共同이

『밀레니엄 다이아몬드』나? (耽俗偶像)

『밀레니엄 금강산』이나? (脫俗敬虔)

이것이 새 천년의 命題이자 선택의 안나리요

오늘도 東海의 푸른 바닷물을 가르며

나그네를 부르거나 北南의 共同의 共同이

이 共同의 共同의 共同의 共同이

論壇

항공전략사상과 미래전(II)

- 제공권 사상을 중심으로 -

(전호에서 이음)

세바스키의 항공전략사상

러시아 출신 세바스키(Alexander P. Servensky : 1894~1974 미국)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의 전략사상은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방법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구비하는 것이며, 이렇듯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공군이라 했다. 그는 공군이 군사전략의 기본요소가 되며 군사력의 기초로서 새로운 전쟁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래전이 미·소간의 대륙간 전면적인 공상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충돌로 항공력이 전쟁에서 승리와 점령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략폭격을 위해 제공권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중방어를 중시하고 결정지역이본을 내세우면서 결정지역에서의 제공권 확보로 세계 지배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날 있어 항공력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를 주장하는 국가의 능력이며 국가가 그의 항공력을 적용하는 군사도구는 공군이다. 평화시에 적절한 규모와 능력을 구비한 공군의 존재는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시에는 제공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공력은 미사일, 탄도탄, 항공기 등을 공군무기에 적절히 포함하는 항공우주세력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트렌차드의 항공전략사상

트렌차드(Hugn Trenchard : 1873~1956 영국)는 영국공군의 창시자이며 영국공군을 트렌차드는 미래의 항공전력에 대하여 건설한 믿음을 가졌던 인물로 매우 겸손하였으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에 불투하는 매우 도량이 크고 열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직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18년에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영국공군을 독립시킬 수 있었고 종전 후 영국의 탱크 부대들은 해체되었으나 영국공군만은 그의 항공력 유지를 위한 투쟁으로 계속 존속하여 2차 세계대전시 독일공군과의 영국전투에서 선전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의 항공력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두레, 미겔, 세바스키, 트렌차드 등 항공전략 사상가들은 나름대로 항공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이론과 생각을 주장했으나 그 당시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반대세력이 없지 않았다. 이제까지 지상군 또는 해군력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반대도 동조도

않은 중도세력의 행태를 보이거나 공군력은 육군력과 해군력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보수주의 성향을 보였다.

20세기의 끝에서 새로운 전념을 열어나가는 최첨단 과학정보시대를 맞은 현실집에서 보면 그러한 현상. 지상군 위주의 주장들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반전위적 사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강대국 대부분이 항공력을 경시하고 있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항공력 발전을 가져오는데 얼마만한 노력과 사고의 개혁이 필요했는가를 짐작해 한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는 군사 후진국들간에 지상군 중심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의 걸프전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영토를 회복하거나 점령하는 것은 지상군이다"라는 지상군 우위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현대전에 있어 항공력의 역할

현대전에 있어서 항공력은 전쟁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의 본질과 역할을 생각할 때 항공력이었으면 전쟁을 시도할 수도 없으며 어설론 시작은 패망을 초조할 무모한 정치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사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직접 겪은 한국전쟁, 월남전, 중동전, 인파전쟁, 포클랜드전쟁, 전쟁을 억제하면서 국가 의지와 집단안보의지를 적나라하고도 확실하게 보여 주었던 오사카 원자로 공격작전과 레바논 전투, 현대전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 준 걸프전과 최근의 NATO 가 항공력으로 유고 공복체 한 코소보 사태 등은 한결같이 항공력을 앞세운 전쟁이었으며 항공력으로 의지를 관철했다.

과거 50여 년의 전쟁의 역사는 인류역사에 가장 전쟁이 빈번했던 기간이었으며 공군력이 주도했던 전쟁이었다. 이 전쟁들이 남긴 교훈 속에서 무엇이 전쟁의 억제력이며, 무엇이 전쟁승리의 무기이며, 그 힘을 운용하는 전쟁교리는 어떠한가 하는 그 해법이 너무나 자명하다.

걸프전과 현대전에서 얻은 교훈들

첫째, 거듭된 전쟁에서 재입증된 것은 공중우세의 획득 및 유지가 전승의 관건임을 명백히 했다. 현대전을 수행함에 있어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중우세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중우세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적의 군사작전은 제한되는 반면, 우군이 지·해상군 작전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입증했다.

둘째, 기습공격의 심대하고 전승의 결정적 효과는 공군력에 의한 기습 작전계획에 좌우되며 과학병기의 발달에 따라 기습의 성

격도 전술적인 기습에서 기술적인 기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군사교리, 작전교리, 작전계획 등에 대한 보완과 수정 조치를 빠르게 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무기체계의 상대적 우위는 초기에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로 입증됐다. 거부할 수 없는 전투력, 정교하고 심대한 파괴력, 전전후 작전능력, 적시 정보와 통합작전 능력발휘의 연계성 등은 현대전의 특징적인 것이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보기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투정보는 항공전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절대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라 기동성이 향상되고 정밀공격 능력이 신장되며, 위장 및 기만전술이 향상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투정보 지원능력 없이는 전쟁 상황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전후 정보수집 및 실시간의 전투정보 전파체계의 구비가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었다. 정보체제를 전적으로 주한 미공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바 크다.

다섯째, 전쟁양상 및 공격전술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며 전투상황은 예측 불허이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 및 감도 높은 훈련이 요구될 뿐 아니라 단일 지휘체제에 의한 일사불란한 전쟁지휘본부 운영, 완벽한 C4 체제의 운영 역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전승승리의 요체로 입증되었다. 일사불란한 전쟁 지휘본부의 운영은 전승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공군력, 항공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장 지휘체제는 주도군의 전문적인 전력운영으로 지휘권을 맡겨야 하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 아래 통합전력발휘의 지휘구조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승리의 병기인 항공력을 불기분의 원칙과 교리에 따라 전력을 집중으로 운용한 사례는 제공권 사상을 재입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여섯째, 방어 및 수세적 전략 개념으로는 평시 전쟁 억제 및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적에게 기습공격을 허용할 경우 전력을 보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쟁 억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항공력의 억제력 수준의 건설은 실증보복의 국가의지를 담고 있는 가시적 군사 전략이어야 하며, 막대한 투자와 중장기 전략기획사업이기에 때문에 선가자적 애국심으로 예산 투쟁을 하지 않으며, 요구 수준의 획득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일곱째,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군사작전은 오히려 자국 군사력의 대량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공중지원이 없는 지상이동작전



박종권(9기)

· 한국군사학회 이사
· 성우회 정책위원

은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표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습작전의 우선 목표와 전쟁 초의 우선 목표는 전 항공력을 집중하여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공세적 제공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공군작전 교리의 원칙을 입증했다.

지상군을 지원하고 적 지상군의 진격을 저지·격멸하는 근접 지원작전과 후방차단작전은 공군 기본임무의 중요한 일부이다. 먼저 공세적 제공작전으로 적 항공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방어적 작전이 될 수 없고, 항공력의 전력생산으로 결국 전승의 계기를 잃게 될 것이다. 부족한 항공세력과 작전전능에 지속작전능력에 제한을 받게 될 상황일수록 전략적 우선 순위는 더더욱 공세적 제공임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여덟째,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 계획하고 그것은 첨단과학 무기체계에 의한 항공 우주중심으로 "제3의 물결형 전쟁"이라 이름하여 중·후진국에게 신무기 판매의 경쟁시장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 대국의 군사교리는 "군대는 모든 가능한 전쟁과 전투임무를 위해 최적화되어야 하고, 군대는 군사행동의 모든 형태가 가능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다분히 공세적 개념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방위 방위와 적의 공격에 최적화 개념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도 없으며, 결국 현대전에서 얻은 교훈은 전승의 억제력은 무엇이든 전쟁승리의 도구는 무엇이고 선택한 군의 관리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과 틀을 명백히 시사했다.

아홉째,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억제를 위한 전략개념과 전승 승리를 보장하는 전력은 항공력이고 항공력의 관리군이 공군이라는 것이다. 항공세력을 통합하고 그 전력을 관리하는 공군 육성의 큰 흐름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열번째, 미래전의 양상은 다분히 항공력의 특성과 항공무기 체

(3면에 계속)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



차 종 권(20기)

지난 10월 2일, 공군 창군 50주년을 경축하는 기념식장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 제대는 물론 공군을 사랑하는 항공인 모두가 의연하고 집서 정연하게 뚫기는 행사를 갖으면서 공군인의 결집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있었다. 이제는 어엿한 성년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모두를 극복하고 오늘의 장난공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한 1907년 8월 당시 오백린 장군을 중심으로 윌로우스(Willows)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에서 시작된 공군의 태동은 "조국의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선배 항공인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 끝에 1949년 10월 1일 창설되었다. 그 후 우리공군은 한국전쟁과 수많은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국가방위의 최선봉에 있었으며, 그 동안 조국에 대한 어떠한 도박도 필승의 신념으로 물리쳐 왔음은 물론, 대북 전력양성을 만회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하고 자주적 영공 방위 태세 확립과 항공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 공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 수 있었던 것은 "삼과 죽음이 명예 달렸거늘 죽히 논하지 말라,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나아간다(生死有命 不足論, 男兒縱容征大空)."란 신념 속에서 정진을 향해 돌진하여 적절히 질사한 일백순대위와 같은 선배님들의 부훈 정신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 것이다.

공군 창군 50주년을 뒤로 하면서 우리 앞에는 지나온 50년의 시간보다 더욱 중요한 새로운 50년, 나아가 새로운 천년이 놓여져 있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왔다. 특히,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에서 농경사회의 전쟁은 인간의 군력을 중요무기로 하는 백병전 보병전 등의 양상을 보였으며, 산업사회에서는 전차, 항공기 및 함정을 수단으로 기동력과 타격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 상공전 및 소모전이 주요 전쟁 형태를 이루었으나,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회적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전쟁양상까지도 변화하여 정보체계, 우주무기, 비살상 무기 등의 개발로 정보전, 우주전이 보편화될

것이며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하고 깨끗한 전쟁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고는 금세기 말의 걸프전을 분석하며 미래 전쟁 형태를 예견하였고, 코소보 전쟁은 그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가 된 것이다. 이제 막전까지 다가 있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에서는 이념, 가치체계, 세계질서 및 생활 양식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이 이용된 통신, 방송, 기상정보, 환경, 전장감시, 첩보, 조기경보 등 민간과 군사적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우주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의 정보 유통과 처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지구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전후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는 시스템 통합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와 시대가 도래되어 임무 템포가 과거 대비 수십배 내지 수백배 증가할 것이며 민간과 군사의 구별된 별도의 영역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시대 특성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군사역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미합참차장 오웬스 제독이 정립하여 제시한 "신 복합체계"의 구축을 군사역신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 복합체계 구축이란 정찰 체계, 그리고 정밀 타격 체계를 효과적으로 상호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말한다. 신 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이용 무제한 전장 정보를 획득하고, 첨단 C4I 체계를 이용하여 정밀 타격 체계에 완벽한 임무를 부여하며, 항공기와 장거리 유도무기 등의 정밀 타격 체계로 표적을 타격하고, 타격 절차에 대한 실시간 전투 평가를 통하여 임무를 재부여하는 일련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전투력과 상승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 복합체계에 의한 미래전에 부합되는 전쟁 수행 능력 구비는 위 공군에게도 항공 우주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북괴의 변함없는 적화야욕,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필요 이상의 방위력 증강,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군사력 현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군 개혁 의지 등이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며 직면하게 될 동북아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융성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시권을 확장해야 하며 방위 영역

을 공고히 하고 필요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 우주력 중심의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兵可, 百年不用이나 不可, 一日無備"라고 했으니 군대를 백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루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새 천년, 또 다른 천년까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력을 갖추어 국가를 번영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번영하는 조국을 후손에게 이어주고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항공 우주력 중심의 전략형 공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 공군인은 지금 이 응집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트로츠키)

(2면에서 이음)

계의 발달에서 그 유형과 심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임을 충분히 시사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전의 보편화로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과 무기 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합된 체계로 운용될 것임과 미래전 개전 초 기습공격이 일반화될 것임과 최초의 일격이 주는 치명적인 타격효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양국은 속전속결의 단기전이 될 것이다. 걸프전에서 보듯이 막강한 항공력으로 공격목표는 전쟁 지도부, 지휘통제체계, 핵심시설과 제공작전의 목표물이 기습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 전쟁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항공력에 의한 공중우세 확보로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코자 C4I에 의한 공군이 주도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과거의 전쟁수행의 주역이 지상전력에서 이미 항공전력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다. 미래전은 첨단병기의 과학적으로 정밀파괴와 확충과괴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현대전에서의 양상과 교훈을 정리해 보면 잠차

미래전은 첨단 무기체계 및 정보자산을 통합 이용함으로써 정보전의 보편화, 기습의 일반화, 막대한 전비소모 및 정밀파괴실시 등이 될 것이며, 세계각국은 이러한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항공전력을 우선하여 건설하고 운용하는데 노력을 배가 집중할 것이다.

4. 자주국방의 방향

국방자원의 각군배분과 항공력은 깊은 함수관계에 있다. 향후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면서 군사력을 고도화하는데 기술적으로 첨단화된 과학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정보수집, 항공 작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전쟁역력으로는 주한 미공군에 의존하고 제한된 국방비로 그나마 확보의 남침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지상군 위주의 전력을 강화해 왔다.

통일 이후 우리의 위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본과 인력이 나가고 있는 국가들과 전략물자가 수송되는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초강대국화된 미국의 I극 체제하의 다극화

현상은 오히려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예견케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방위조약과 군사협력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위상과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제는 건설할 때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한국방위는 한국 주도하에 미국이 지원하고, 지역방위는 미국 주도하에 한국이 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제도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의 안보는 미국의 핵 우산아래 자주적 국방의 기반 조성을 한다는 국민적 기치아래 방위 성금을 모으면서 지상군부터 현대화 계획을 착수했다.

지난날 우선 휴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는 군사전략 개념을 합참전략목표기획에 깔고 전체국방비의 70%를 운영유지비에 소모하고, 30%는 장비현대화에 투자했다. 전투력 증강사업 총 예산의 60%가 지상군 증강사업이었고, 나머지 공군, 해군의 몫이었다.

공군과 해군의 전력역 지상군 못지 않게 중요하긴 하나, 현대화 계획 추진에 지상군을 우선케 했고, 우선적 지상군 정비 현대화 기간을 10년을 예측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군별 전력 증강비의 배분은 지상군 장비 증강 위주로 집중 투입되었고, 계속해서 전략의 기본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방자원의 불균형적인 배분으로 항공력의 최적의 증강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전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항공력을 육성할 수 없다. 공군력 건설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래전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이며, 예산회득을 위해서는 합동전략목표 기획에서 정확히 군사전략개념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책지침과 전략개념의 수정과 국방자원의 3군 총량의 투쟁적 합의없는 국방 5개년 계획도 바뀌어질 수 없고, 명문화된 정책과 전략개념의 수정 없이는 실무자는 새로운 국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합성의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지침과 근거가 없는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결정기준이 없어 전년도 예산에 불가상승률을 더한 점증적인 전년도 합성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쟁지도부의 결연한 의지와 신 사고, 항공전략 사상이 필요한 때이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李柱晟(71)
誠信女大 教授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姓은 불문이고 이름도 한자 다르지 않게 그의 부친과 동일하다. 스미스의 아버지도 아담 스미스다.

1723년 6월 5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인 커칼디(Kirkcaldy)에서 태어났다.

출생과 함께 건강이 좋은편이 아니었던 그는 어머니의 온화한 애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부친이 남겨 준 재산으로 성장하였다. 기억력이 남다른 스미스는 이에 근면한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독서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고전과 수학의 실력을 닦은 그는 14세 때에 당시 어느 다른 대학보다도 진보적인 Glasgow 대학에 입학하여 功利主義 사상의 소유자 F.Hutcheson 교수로부터 도덕철학을 배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철교 및자 못한 허치슨 교수」라고 한 제자 스미스의 표현에서도 “D.Hume 과 A.Smith는 또한 대성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스승의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과학의 도래를 알리는 밝아오는 아침의 새벽도 허치슨 모습은 젊은 스미스의 눈에 비쳤을 것이다.

훗날 「國富論」에 비치는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By an Invisible Hand)은 스승이 배워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신은 존재한다고 하는 理神論 철학의 표현이었으며, 이의 경제적 표명이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으로 나타났다. 이 신론 철학의 기반을 둔 경쟁의 원리가 스미스의 국부론에 앞서 프랑스 중농학파에 의해 공표되었다고 이미 이에 20년이나 앞서 글라스고 대학 철학관에 앉서 되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는 자유경쟁력 시장경제의 원리는 역시 스승의 想源을 이어받은 스미스의 창조가 아닐 수 없다.

글라스고 대학을 졸업한 1740년 장학금까지 받고 진학한 Oxford 대학시절은 그에게 불만이 컸던 시기다. 스코틀랜드에서 왔다고 하는 지방 차별에 이어 강의의 내용들이 참신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없는 교수의 게으름은 그에게 강의보다도 도서관을 택하게 했었다. D.Hume의 「人間本疾論」(A treatise of human nature)을 애독하였다 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옥스퍼드에서의 상처가 훗날 국부론의 한 곳에서 강좌의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교수의 봉급을 주어야 한다고, 인기없는 능력 이하의 교수가 주는 사회적 불효용을 지적하였다.

그 후 2년이 지난 1748년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Edinburgh 대학에서 그의 열광이 시작되었다. 1751년 글라스고 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되고 다음해 스승 허치슨 교수로부터 도덕철학 강화를 물려 받아 12년 동안 강의하면서 1759년에 국부론의 전편인 「道德

情操論」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 발간된다.

이와 같이 30대에 이미 명성이 높았던 그는 바로크 공작의 스승으로 초대되어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고 3년간의 프랑스 및 스위스 여행의 기회를 얻어 당시의 저명한 사상가들인 Quesnay, Voltaire 및 Helvetius 등과 교제하였다. 「국부론」은 이 곳에서 집필을 시작하여 1776년에 간행되었으나, 정치적 자유주의의 외침으로써 나온 미국의 필라델피아 「독립선언」과 함께 역사적 문헌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쌍생아의 탄생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경제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가 하나로 향해 온 必然의 만남이라고 생각에 불 입이다.

1777년 그는 스코틀랜드 관세 고문으로, 그리고 1787년에는 글라스고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790년 7월 17일 Edinburgh에서 정신적 장애로 말도 더듬는 가운데 독신으로 생을 마쳤다.

국부론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 체계는 이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연법 철학과 私利追求의 산술적 和가 공익으로 직결된다는 공리주의 철학이다. 이 두 개의 지주는 사상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방임(Laissez faire)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 5권 32장으로 구성된 국부론은 이 방임의 사상 위에 구축되어, 당시의 重商主義 정책과 사상에 반론을 전개한 학설체계이다.

금·은과 같은 화폐에서 국부의 본질을 찾은 중상주의자들과는 달리, 스미스는 그 본질을 勞動(Labour)에서 찾았다. 과거 수 세기 동안 중상주의는 화폐의 증식에서 국부신장의 본질을 보았다고 비난한 그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일 뿐 價値 그 자체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생산물의 가치 창출은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ur)이 행하여지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교환이나 외국 무역과 같은 유통(Trade)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노동이 행해지는 생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당시의 경제관으로서의 큰 뜻을 주는 분석방법상의 전환이다. 다시 말해서 삼거리에서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생산에서 가치형성의 본질을 발견한 점은 중상주의 체계라고 하는 기존의 학설체계를 부정하는 작업으로 된다.

이런 작업은 그의 가치론에서 전개된다. 어떤 재화의 교환가치가 그 생산에 투하된 정성적인 건강과 숙련을 지닌 노동자의 노동력의 지출량으로서 측정하고서 한 점은 훗날 D.Ricardo의 객관적 가치 학설과 Marx의 剩餘價値 학설의 골격으로 된 노동가치설의 과학적 상원리를 부인키 어렵다.

국부의 내용을 이루는 사회적 산물을 생산함에 투입되는 노동을 그 형태상 스미스는 두 가지

로 구별한다. 생산적 노동과 불생산적 노동이 그것이다. 생산적 노동은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가치와 자본자의 이윤인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이런 뜻에서 이 두 형태의 노동의 구별 기준은 가치를 창조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서 찾고 있다. 불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층을 그는 군주, 관리, 임법자 및 학자 등을 열거하고 이들의 노동은 그 지출과 함께 소멸되어 하등의 가치창조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 기준에서는 謬誤임이 틀림없으나 인연의 진리성은 있다. 과거의 군주, 관리, 학자 등 존경받던 사회계층이 생산적 노동자층이 광범한 사회생산물에 寄生하여 살고 있는 불미스러운 존재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그의 노동의 형태구분은 사회층의 존재의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다. 이런 뜻에서 국부론은 경제학의 테두리를 넘은 사회 철학 서적의 하나이며, 우리의 精神史의 한자리를 점한다. 봉건사회의 종말에 마지막 정신적 타격을 주었으며, 그 후에 이어지는 산업자본의 성립과 그 성장에 항도적 역할을 하였다.

자본가가 자기의 소득인 이윤의 대부분은 절약해서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들의 노동은 생산물의 가치에 다시 이윤을附加해서 자본은 증식 재생산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의 소유자들이 향락만을 추구하고 낭비한다면, 열의 노동하는 자들의 눈에도 못마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생산물의 증대에는 하등의 기여도 없이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을 기생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浪費는 국민의 공적이 고 儉約은 은인이다. 바로 영국의 산업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가의 이윤은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저축되어 투자가 연결되어야 함은 시대적 유포치이었다. 생산적 노동만이 사회 정의의 입장에서 정당시된다.

자본의 증가는 이윤이 소비되지 않고 생산에 투자될 때 달성된다. 자본축적과 관련하여 노동을 생산적, 불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산적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가치를 부가시키며, 자본자에게 이윤을 가져오는 노동이다. 여기서, 자본축적을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과 동일시한 점은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고정 자본이 고쳐되지 않았다고 하는 오류가 지적되었으나, 당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공장제 수공업이 지배적이었음을 생각하면 자본의 사용은 모두, 아니 적어도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고용과 일치시켰을 것이다. 더욱이 장기적 관점에서 아니고 단기 분석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부의 증대를 담당할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이윤 및 地代소득자들이 얻은 수입부분의

대부분이 저축되어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저축의 여력이 없는 노동자층의 절약에서가 아니라, 지대 및 이윤소득층의 겸손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고 이때 분업(Division of labour)에 입각하면 노동생산성이 늘고 사회생산률, 즉 국부가 증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사회현실에도 크게 무리없는 진리다. 부의 본질을 노동에서 찾고 그 부의 증대의 원인을 분업에서 발견하였다.

정신사적으로, 군주의 意志가 국민의지로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사회적 요청에 발맞추어 자유방임의 경제관이 정부의 정책을 굴복시키는 작업이 스미스의 사명 의식이었다. 이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연법 철학과 사리 추구의 산술적화가 사회의 공동성으로 이어지다는 공리주의의 사상, 政策이 아니라 放任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방법론상, 제국주의, 즉 이기심(Aelf-lore)의 발로가 모든 인간 행위의 동기를 발견하고 효용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 그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는 인간을 사회의 세포구 구성요소로 본질은 분석 도구의 훌륭한 추상화다. 학문은 구체적 귀납에서가 아니라 抽象的 縝縟의 힘이 아니고서는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다.

학설사적으로, 부 내지 국부의 본질규명을 당시 지배적이었던 중상주의 학설체계에와 같이 금·은과 같은 화폐에서 찾거나, 중농학파의 토지만이 純生産物을 창출한다는 것과 같이 흙에서 찾지 않고, 스미스는 노동, 그것도 생산적 노동에서 발견함으로써 산업과 농업의 사회적 비중을 공업으로 옮겨 놓았고 산업자본을 응호했다. 훗날 노동을 부의 본질로 보는 노동가치학설의 계승은 자본축적의 理面分析과 경제적 기본론으로서의 노동 全收權 사상의 실현을 형성한다. 이렇게 부의 본질을 노동에서 찾고, 국부증진의 원인을 분업에서 찾은 것은 한편으로는 산업 자본의 자기운동에 준 학설사적 공원이 지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조직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중상주의에서도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방임주의의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으나 대외 거래에서 보이는 손으로서의 정부의 간섭이 아닌, 자유무역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훗날 독일의 역사학파의 원조 F. Wist에 의해서 감자의 지배원리는 되어도 약자의 생존원리는 못된다고 비난받았으나, 당시 감자인 산업자본에 대결하여 약자인 신흥 산업자본의 입장에 있음을 보면, 그로 인하여 학설사적 공원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항상 矛盾과 對立 속에서 조화와 발전이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윤행함을 보면 스미스로부터 그 정신적 조춌음 이어 받은 자본주의 경제조직이 오늘날 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미스의 사유능력의 역사적 한계를 뜻함이 아니다. 시간과 함께 변화하지 아니하는 현실이 없으니 시간과 더불어 퇴색되지 아니하는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空士總同窓會 消息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 참여 學生 激勵 會食

本會는 이공회(2기생회) 후원으로 지난 10월 10일 공군회관에서 새로 부활한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여한 생도, 지도장교 및 코치들의 노고치하를 위한 격려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생도뿐만 아니라 모교 회장 안병천 중장을 비롯, 본회 회장단 및 1기부터 6기까지의 고

문단과 이공회 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和氣滿溢한 가운데 선후배의 뜨거운 정을 나누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되었다.

모교 교장께서는 이 모임의 뜻에 감사하고 다음 해의 승리를 위한 격려사와 편지를 다짐하는 축배를 제의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2차 招請 懇談會 開催

空士總同窓會는 지난 10월 29일 공군회관에서 8기부터 15기까지의 기생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본회 한주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同門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공사총동창회 5개년 발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동문·동기회

회장단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였다. 또한 편생회비 납부는 각 동기회가 주축이 되어 빠른시간 내에 완납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이날은 "KBS TV 내부방 신고합니다"에 출연한 11기 동기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프로제작의 예로사장과 뒷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번 방문에 적극적인 협조와 단의 제한으로 전체 예비역 동지원을 해준 空軍과 제20전투비행단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됐던 장병에게 감사하며, 수승수내 아쉬웠다.



강릉전적비 추모제 참석

本會 會長團은 강릉전적비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추모화환을 헌화하고 自由와 平和를 위해 산화한 선배 영령들에게 경건한 추모와 거룩한 희생에 감사와 묵념을 드렸다. 이 행사는 공군참전군인회 주관으로 '99년 10월 28일(목) 14:00 강릉시 경포대 공군전적비에서 6·25 당시 生死苦樂을 함께 한 空軍參戰軍人 200여 명 회원과 權成根 회장을 비롯하여 朴元錫, 玉滿鎭, 鄭用厚 전 공군참모총장과 朴在賢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하여 이억수 공군참모차장, 그리고 심기섭 강릉시장, 최종설 강릉시회의의장, 노영구 강릉보훈지청장, 김인영 강릉경찰서장, 유재홍

공군18전투비행단장, 은내회(공군조종사 미망인회) 윤연상 회장, 공군장병 등 6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같이 전투에 참가했던 공군참전군인회 權成根 회장의 追慕辭 낭독, 민병규 장군의 追慕歌 등 많은 강릉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추모행사를 하고 Black Eagle Team의 멋진 곡에(Air Show)를 파란 하늘에서 강릉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식이 끝난 그 자리에서 각테일과 茶藥會食을 가진 후 歸京길에 東海岸으로 가서 간첩들이 침투시가지고 왔던 좌초된 잠수함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왔다.



김상태 전 참모총장(2기) 午餐 초대 參席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현 한국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은 지난 11월 2일 本會 會長團을 초청하여 성대한 오찬을 베풀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하

였다. 특히 本會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 3,000,000원을 즉석에서 쾌척하였다. 本會 한주석 회장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본회 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하고, 본회 발전계획을 간단히 보고하였다.

空軍 第20戰鬪飛行團 訪問

本會 會長團 및 本會 1기~15기까지 임원 35명은 지난 11월 12일 空軍 第20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하였다. 처음 가보는 제20전투비행단의 선진화된 모습과 신예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에 가슴설리며, 09:00에 공군회관을 출발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아산방조제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가는 일정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국도서쪽의 대동맥으로서 현재 인천-포승간, 서천-군산간, 무안-목포간이 개통되어 있어서 금일의 예정은 경기도 구간간(인천-포승)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기타 지역은 國道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단에 도착하니 단본부 현관에 환영 플래카드와 함께 비행단장의 지휘관 참모들의 따뜻한 영접이 있었으며, 이어서 부대현황 청취 및 환담과 질의응답으로 同門間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점심식사 후 시뮬레이션실, 무장전시, 비행대대, ALT/RM, 야대 등 기지 전반에 대한 부대 견학을 마치고 15:30경 부대를 출발하여 귀가하였다. 이번 부대방문은 예비역 동문과 현역 동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同門間의 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예비역들은 제20전투비행단의 규모와 현대화된 시설 및 최신에 전력과 전투기량에 탄복하였으며, 단장 이하 전장병들의 따뜻한 영접과 친절한 안내에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임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후배장병들의 모습에서 완벽한 영공방위와 튼튼한 안보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空士總同窓會 會員證 發給

本會는 그동안 母軍 및 母校 동창회 협의를 마무리짓고 총동창회 회원증 발급을 승인받아 회원증 발급을 시작하였다. 본회원들은 母校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행자에게도 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공사총동창회 회보 15호 참조).

本會에서는 1차로 평생회비 납부자 기준으로 회원증을 발

급하고 있으며(신상기록카드, 증명사진 2매 제출자) 현재까지 188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제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15일 단위로 발급하여 우송해 드리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會員들은 조속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6면에 계속)



母軍·母校 短信



● 공군, 전부대 지휘관 회의 개최

공군은 지난 12월 14일(화) 오전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전대급 이상 공군 전부대의 지휘관과 공군본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99년을 돌아보고 새 천년을 맞는 공군장병들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국방정책방향 보고, '00년도 공군 임무중점 보고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복귀의 동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복귀도반도 격퇴시킬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결의하였다.

또한 희망찬 새 천년의 세해를 맞아 공군 전 장병들의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한편, 미

래지향적 공군력 건설의 지속추진과 각종 사고를 근절하여 무위의 전력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임무기강 쇄신」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날 차총장은 훈시를 통해 "부여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해 온 각급 지휘관·참모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고, "새 천년을 맞아 적의 어떠한 도반에도 조건반사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관리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방공군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공군 '99보라매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 거행

공군은 지난 11월 25일(목) 오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참모와 19진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99보라매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사격대회에 참가한 KF-16, F-16, F-4, F-5, A-37 등 각종 항공기와 참가조종사 및 후방지원요원들이 참석하여 수상의 영예를 같이 누렸다.

영예의 대통령상인 종합 최우수수대는 19진비의 101대대, 17진비의 152대대, 19진비의 155대대가 수상했고, 최우수 사격조

종사인 TOP GUN에는 KF-16으로 대회에 참가한 20점비의 김률호 소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18개 우수대대와 30여 명의 사격 우수자가 국방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공군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일격필투의 전투기량과 최고의 영공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보태세에 관한 신뢰를 심어주고,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 '99-2차 고등비행 수료식 거행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19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열린 '99-2차 고등비행 수료식에 참석하여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춘택 참모총장은 이날 훈시

를 통해 "신임 조종사들은 비행 훈련 입과시에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계속될 실천적 훈련을 통해 전투조종사로서 기량향상에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군 132정찰비행대대, 21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공군은 지난 12월 2일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박춘택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39전대 132정찰비행대대의 21개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번 대기기록을 수립한 132대대는 1958년 창설, 1972년 현 운용기종인 RF-5A를 도입한 이래 1978년 11월 7일부터 지난 1999년 11월 8일까지 2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총 4만4천여 시간의 비행임무를 완수하였다. 공군은 통상 비행시간 단위로 무사고 기록을 집계하나, 전술정찰비행대대의 경우는 3년 단위로 무사고 기록을 집계해 왔는데, 이번에 132대대가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하게 되었다.

비행대대장 김도호 중령(金道鎬, 공사 28기, 43세)은 "132대대의 21년 무사고 비행은 민항기를 포함한 한국 항공역사에 있어서 최장기 기록이며, 전술정찰임무의 특성상 초저고도에서 고속 기동을 위주로 하는 어려운 비행환경 속에서 달성된 기록이

기에 더욱 뜻깊으며 한국항공사의 쾌거"라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132대대의 정찰비행은 일반 비행임무에 비해 1/3도 안 되는 초저고도에서 일반비행과 같은 속도로 낮살고 신속하지 않은 지역을 자체항법으로 비행함으로써 지면과의 충돌 가능성을 비롯한 돌발상황 발생시 긴급 처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극히 짧은 어려운 비행환경에서 이러한 대기기록을 수립하였다.

한편, 132대대는 안전한 비행관리를 위해 명예기장제도도 확립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대기기록 수립에 기여하였다. 명예기장제도란, 본래 기장인 정비감독관 외에 별도로 조종사를 1일 기장으로 임명해 2명의 기장이 함께 항공기의 고장을 탐구하고 항공기 관리에 대해 토의하게 함으로써 조종사와 정비사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정비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각종 예견되는 사고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군참모총장, 美 7공군사령관 초청행사 가져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은 13일 계룡대에서 지난 8월 14일에 취임한 주한 美 7공군사령관 헤플바워(Charles R. Heflebow) 중장을 초청하여 최근의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 공군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총장은 헤플바워 중장 일행을 맞아 의정장사를 비롯하여 접견 및 만찬을 함께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7공군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예방을 방지하고, 유사시에는 전승을 보장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최첨단 핵심전력"이라며 "앞으로 신임 헤플바워 사령관 취임의 계기로 한·미 양국 공군간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협조체제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플바워 美 7공군사령관은 박춘택 참모총장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안내장성으로 수행하여 한국 공군과는 매우 인연이 깊으며, '98년 9월부터는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으로 재직하여 미 공군에서는 몇 안되는 동아시아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227회의 전투임무를 포함한 3,700여 시간의 비행기록, F-15, F-16을 포함한 총 7기종의 다양한 비행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물론, 70년대 냉전시대의 상징이었던 서독에서 전투조종사로서의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유사시 효과적인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初·中·高校生에게 空士 開放

지난 12월 4일(土) 母校(校長 安炳哲 中將)는 청주·청원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3,400여 명을 초청하여 母校를 견학시켰다.

이번 초·중·고등학생 초청행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공군과 항공우주기술을 이해하고 21세기에 그들의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었다.

학생들은 母校의 소개와 박물관, 각종 전시물, 항공기 전시장 등을 관람하면서 20세기에 항공기의 발달과정과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날 초청학생들은 사관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는 보기 드문 생도들의 열병 분열과 조국의 영공수호를 책임질 능률한 사관생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서 찬사와 감탄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도 점차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공군과 공사를 널리 알리는데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다음 세대의 새세상이 공군을 알게 하고 영공방위의 중요한 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우수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母校는 평시에도 학교단위, 지역단위로 견학신청을 받아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만명의 학생들이 견학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母校 女生徒 "미래의 여자 전투조종사 꿈" 찾아서

지난 12월 2일 공군 사관학교에서는 미래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수학과 있는 여생도 50명을 군산 미 공군기지 견학을 시켜 미 전투조종사와 미 여군장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희망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원대한 꿈을 간접적으로 실현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여생도와 미 공군 여자 조종사의 만남은 T-38과 F-16 항공기가 주기돼 있는 비행대기실에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 여자 조종사와 인사를 나눈 뒤 여자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T-38과 F-16 항공기의 시동에서부터 이륙하여 비행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진지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꿈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T-38 시열비행 조종사인 마리아 메리온(Maria Marion) 대위, F-16 조종사인 셰리 맥캔드리스(Sherrie Macandless) 대위 등 미 공군장교와 자리를 같이 하며 평소 궁금했던 점, 즉

▲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

▲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자세

▲ 전투조종사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여생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삼 확인하는 기회도 가졌다.

T-38 시열비행 조종사인 마리아 메리온(Maria Marion) 대위는 공사의 능률한 여생도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말하고 전투조종사가 되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그녀는 "전투조종사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투철한 국가관을 함양 견지하여야 하며, 피상적인 호기심에서 전투조종사가 되겠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견학행사에 참석한 여생도들은 앞으로 국내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투철한 국가관 함양과 함께 굳건한 정신과 강한 체력을 단련하여 반드시 첫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會 員 動 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기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기	김창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86-1 201호	(02-356-7178)
2기	박재훈	대구시 남구 봉덕동 1141번지 효성타운 202-603	(053-476-5329)
2기	김동효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412 이촌A. 101-704	(02-792-0662)
2기	이원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5-22 목동트윈빌 C-813	(02-2644-9139)
4기	유동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2번지 효성1차A. 101-1404	(02-633-7594)
5기	성재량	고양시 일산구 탄원동 큰마을 현대A. 1222-604	(0344-914-1351)
5기	차순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금호A. 302-1208	(0344-902-2581)
5기	신봉림	충북 충주시 소태면 북탄리 545-1	(0411-854-9887)
6기	김양진	고양시 일산구 탄원동 121 큰마을 현대A. 118-803	(0344-914-5401)
7기	오세창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연대과학빌 101-2802	(02-852-3071)
8기	김성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부인A. 611-1204 KIM SUNG WHAN 54-007 Pipilani PL Hauula HI 96717	(1-808-293-4968)
8기	김두선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1447-53	(0578-382-9500)
8기	김동현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45-1 요진A. 208-102	(0345-418-2105)
8기	김인숙	경북 경주시 흥효동 270-2 현대A. 102-603	(0561-772-1683)
8기	서진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8 영석A. 106-1403	(0431-253-6769)
10기	김종선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80 신동아A. 111-803	(032-512-2239)
13기	문기철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동3가 463 해동화재빌딩 7층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상무이사	(02-2001-3600)
13기	김진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한진A. 807-803	(0342-716-7745)
13기	이강영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오피스텔A. 824호	(0342-712-3390)
15기	이강섭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10-23 대림A. 405-150	(02-677-1958)
16기	김희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A. 406-2002	(0342-719-2829)
18기	이선희	성남시 분당구 셋별마을 라이프A. 18-301	(0342-704-8019)
21기	김영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49 현대대우A. 807-2002	(0431-223-1407)
21기	김창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인광A. 102-1504	(0431-294-3377)
22기	손종열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96 고척대우A. 107-102	(02-683-9238)
22기	강원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7 주공2단지 201-1406	(02-658-1862)
27기	박래백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0 신원당A. 702-402	(0344-962-3160)

직장동정

- 1기 유 태 원
대표이사 회장 취임
TSRI. KOREA(미국 Y2K 해결 컴퓨터회사, 한국 진출)
(집 : 824-8066, 사무실 : 5677-112, 456-7)
- 5기 이 재 우
부회장으로 취임
동국대 碩座教授로 재직중인 同門
국제정보시스템 감시동맹협회(ISACA)
- 6기 전 춘 우(예, 공군소장, 전 공사총동창회장)
대한지적공사 사장 취임('99. 11. 6.)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번지, 02-780-5296, 9568, 6966
HP 011-234-3789, FAX 02-780-5239)
새정치국민회의 안보위원회 부회장 겸
국가경영전략위원회 안보분야위원

화 혼

- 유 성 봉(15기) : 딸 10월 30일 섬유회관에서
- 안 위 공(15기) : 딸 12월 5일 14:30 목화에식장에서
- 김 준 수(7기) : 장남 11월 6일 13:00 공군회관에서
- 박 종 식(7기) : 四女 11월 14일 14:40 의정부 낙원웨딩홀에서
- 정 해 일(7기) : 차남 11월 21일 11:00 공군회관에서
- 남 천 석(7기) : 차녀 11월 6일 13:00 인천 경인침례교회에서
- 박 찬 목(7기) : 차남 11월 27일 14:30 군인공제회관에서

축 하 합 니 다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침첩장 우송을 대령해 드립니다.
총동창회의 축하 깃발을 빌려드립니다.

부 음

- 김 영 곤(22기) : 11월 10일 현대 중앙병원에서 별세
- 양 학 재(3기) : 11월 24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
- 김 시 영(5기) : 12월 19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

삼 가 고인 의 명복 을 빙 니 다

揭 示 板

平生會費 納付

평생회비는 10만원입니다. 미납하신 회원(예비역, 현역)은 각 동기회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며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 372-01-046167 조흥은행, 예금주 : 공사총동창회
319-155579-02-001 한빛은행, 예금주 : 공사총동창회(김영식)

會報원고 모집

매분기말 10일 전까지 마감합니다. 좋은 원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身上變動連絡

주소, 전화번호, 직장(취임, 승진, 전보)동정, 자녀결혼, 타향(同門)이 있을 시 연락바랍니다.

期別消息

各 同期生의 소식(모임, 행사, 선행, 친목 등)을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財 指定을 祝賀합니다

本會 會員 洪仁圭(空士 7期) 同門의 450여년된 本家が 文化財로 指定되었습니다.

- 指定內容 : 慶北 文化財 第357號
(洪仁圭 本家 목조 연오조 4棟)
- 指 定 日 : 1999年 3月 11日
- 位 置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동 768번지
(팔공산 뒤편 제2석굴암에서 1km 地點)

* 대구지방 여행을 할 경우에는 동화사, 갓바위, 제2석굴암 관광과 함께 본 문화재를 답사할 수 있으며, 인근의 제2석굴암 운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가 인근에 있어서 역사탐방의 좋은 코스로 추천합니다.

編輯後記

1. 會報의 편집방향은 同門消息과 會員動靜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玉稿가 지면 관계로 이번 16號에 게재 못하였으며, 이를 원고는 다음 17號에 게재토록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동문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기고 바랍니다.
2.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광고 협찬을 해주신 (株)三一事務機代表理事 成甫慶(5기) 및 (株)中央高速 金鴻來(10기) 社長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게재가 필요하신 분은 총동창회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게재하겠습니다.

會員寄稿

母校訪問

지난 10월 5일 母校 개교 50주년 특별기획방송(KBS) "TV 내 무반 신고합니다"를 촬영하기 위해 11기생들이 방송국 버스로 새벽공기를 가르고 정주로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우리는 이번 행사가 잘 되어야 본전이고感謝할 뜻이라도 되는 모교와 공군에 傷處를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모교 입구 삼거리에서 下車하여 기대한 공군사관학교 표지판을 쓰다듬어 보면서 41년 전인 1959년도에 서울 대방동 電車驛에서 假入校를 위해 같이 오던 생각들이 走馬燈처럼 스치었다. 어드레 모두들 還甲 나이가 되었고 머리 카락도 거의 半白으로 변한 모습으로 노란색 단풍의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정문까지 천천히 약 5분 정도 걸어가면서 모두가 공군에서 一生을 살아온 빛진 보람과 추억담을 주고받으며 웃으면서 지나간 回顧에 잠겼다. 현역시절이나 전역 후 數차례 모교를 방문하였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 갈 때와는 전연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 淸涼한 感慨를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니었으리라. 우리 사이에는 계급도 없고, 兵科 특기 구별도 없고, 직책도 銜當 차이도 없고 티없이 많은 열아홉 살의 소년들이었다. 青春이란 인생의 어느 期間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은 신념과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면 젊어진다고 본다. 세월을 거뜨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皮膚에 주름살이 생길뿐 마음은 늙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과 정열을 잃을 때에 비로소 늙게 되고 정신이 시드는 것을 보면 결국 청춘이란 마음의 狀態를 말하는 거 같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實感 合格했구나 하는 것을 實感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난다. 합격발표 신문을 보시고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別出하신 부모님 얼굴 표정

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모든 逆境을 헤치고 열망하던 꿈을 이루었을 때의 나 자신의 感激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하여 동기생에게 참가 요청대 온갖 이유로 방송출연을 辭讓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멋지고 값진 추억을 회상하는 순간을 함께 만끽하지 못함이 아쉽다. 오늘 같이 온 동기생 중에 특별히 고맙게 여기는 두 사람이 있다. 참가 인원수가 부족하여 절필필 때 同甲기념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도 이 행사를 위해 취소시킨 박재의 회원과 심한 불살람기로 입원 계획했던 약수도 破棄하고 참가해준 안병문 회원이다. 이 두 사람의 滅私奉公 정신이 偉大력이 되어 많은 동기생들이 積極 同參하게 된 契機가 되었다. 모우를 모교 방문길정을 샅샅이 자기 스스로 온 감동들 받았음을 異口同聲으로 말했다. 모교 입구 삼거리에서 정문 통과까지의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고 또한 값진 교훈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기를 부여하였다. 불과 5분 거리를 걷는 동안 우리는 공군사관학교와 비영기를 꿈꾸던 動機와 시험공부, 합격, 입학, 교육훈련, 졸업, 진급 등등 이제까지 살아 온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한권의 장엄한 드라마처럼 腦裡를 스쳐감을 느꼈다.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개인적으로 모교를 방문시는 꼭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정문을 통과하여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학교본부 건물에 도착하니 교장님을 비롯한 후배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현역시절 후배들로부터 迎接받던 것과는 다른 그야말로 진정한 선후배 사이였다. 형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 交感하는 예의 깊은 환영 인사였다. 교장님의 간내로 회의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환영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 각자 명패가 있는 자리에 앉으니 강도근부북, 조종부북, 비영모자, 체육복, 단화, 조종화 등이 미리 분포한 크기에 맞게 준비하였는데 특히 우리를 감탄하게 한 것은 縫놓은 조종용장 명찰과 근무복에 꿸는 플라스틱 명찰을 우리들 각자의 실제 이름으로 만든 것이었다. 놀라운 發想이었다. 불과 몇 분 안되는 환영시간, 그것도 명찰은 환영도 안하는 부분인데도 그토록 선배들을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이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에게 진정한 고마움으로 남았다. 선후배의 격을 넘어 영원한 공군의 한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맛보았다.

앞으로 어디서든 후배를 만나면 내가 먼저 身分을 밝히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겠다고 조종하다짐하였다. 생도 복장을 입고 박물관에 들어가서 동기생 이름이 새겨진 銅版을 만지면서 여러 가지 事緣으로 먼저 幽明을 달린 동기생과 함께 졸업하지 못한 동기생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제까지 살아 숨쉬는 것이 壽筵간였고 전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우게 느끼게 하였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생도식당에 도착하니 4학년 생도들이 식탁 입구에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한 사람씩 배당된 식탁으로 안내하였다. 크고 넓은 식탁 안으로 들어서니 좌석을 짝 매운 생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우리를 영광적으로 환영하여 주었다. 식탁별로 드문드문 분산하여 앉아 졸업 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생도식사를 하였다. 요즘은 자율배식을 한다고 한다. 大연병장에서 생도들로부터 열병과 분열을 받을 때 과거 우리의 생도시절과는 달리 인원수가 몇 배로 증가되고 복장도 화려하여 푸른 잔디와 잘 조화되어 마치 살아서 푸른 참공을 雄飛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찬 보라매 같았다. 당시에는 생도 인원이



최희영(11기)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열병과 분열시 隊伍의 균형과 조화가 없었고 예복도 화려하지 않았고 잔디밭 演習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完結적인 광경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의 자부심은 하늘같이 높았다. 스킨스 구입이 없던 女生徒들의 능률한 모습을 보면서 힘찬 박수를 마음껏 보았다. 우리 일행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공군의 元氣원이 뛰어난 자랑스러웠다. 공군을 이렇게까지 성장하도록 성원을 보내 준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후배생도들은 初志一貫하여 참공을 정복하는 꿈을 성취함은 물론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하느라, 미래의 공군 주역으로서 하늘로! 우주로! 마음껏 힘찬 날갯짓을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 동기생은 이번 촬영행사를 통하여 화합된 분위기로 동치고, 모교와 동창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으며, 향후 50년 後인 모교의 개교 100周年 때 이와 類似한 프로그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0주년 歲忌는 행사에 微力하나마 11기생이 役割을 맡았다는 것을 명예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생을 같이해 온 모교와 공군과 동창회의 無窮한 발전을 축원한다.

금강산 일기

(전호에서 이음) 1999년 5월 3일 월요일(비)

오늘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려 우비를 지참하고 구룡폭포쪽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바지선에서 내려 조발로 정렬해 통과하고 버스 탑승하는 것은 작일과 변함이 없고 온정리로 가서 신계사터를 지나, 목란각 못미처 버스를 내려 잠시 휴식 후 구룡폭포로 향한다. 다행히 오늘은 중간지점에 쉬웁살 (화장실)이 있다. 작일처럼 생리현상을 처리 못해 난쾌를 보는 일은 없으리라 하지만, 2인 1조로 지키는 지도원을 짓찌지, 아니면 나무 그림자 사이사이로 어른거리는 인민군들이 쌍안경으로 감시하고 통과하는 짓찌지 밟 수는 없으나 어서는 어떻게 보고와서 다그치는지 몇몇 사람이 산천 오 염죄로 벌금을 낸 작일의 경험 때

문에 모두들 부지런히 배설에 열심이고, 특히나 구룡폭포쪽은 김부자 우상화를 위한 선전문구, 교시록 등이 온산을 뒤덮고 있어 그들이 대경실색하는 연행을 조심해 달라는 조장들의 수없는 당부가 줄을 잇는다. 하나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이 불은 때문인가? 아니면 즐기기 싫어감이나 안은 우리들의 한처럼 수없이 널린 계곡과 시내 때문인가? 계곡마다 명경지수, 소리쳐 흐르는 물소리로 가득한데 구룡폭포 즐기는 허망하고도 잡스런 인간사를 뒤로 찌고도 남고 어저 만물상과는 또 다른 풍광을 자아낸다. 하늘을 덮고 짙어 누르듯이 솟은 바위산들이 병풍을 치듯 둘러싸는 가 하면 다시 반석위를 쏟아져 내리는 비룡폭포, 구룡폭포가 혈로를 뚫고 하늘을 헤쳐나가는데

공사 15기 최성열 제11전투비행단장 전 삼성항공 임원 현 GEC-Marconi 삼임고문

산봉우리는 산봉우리대로 기묘묘한 형상을 지어 조화를 이룬다. 묘경과 암반, 명경지수와 하늘이 수놓은 비경,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의 으뜸인 금강산이고, 또 봉래산이며 풍악산이고 개골산인 보래의 산! 말로 듣고 그림으로 보아왔어도, 이렇게 한 많은 세월을 뒤로 하고 찾아와 안긴 금강의 대자연은 그 모진 세월을 잊게 하는가? 아니면 잊게 하는가? 나는 산을 내려며, 계곡을 따라 걸으며 또 다람쥐 보고 이름 없는 풀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이처럼 아름다운 절경에 따사로운 인정이 어우러져 친진한 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늘의 금강산은 천지는 괴리하도록 조용하고 구슬픈 두견새 소리마저 사라지고 없고, 다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한

많은 남녘의 노인네들과 음산한 까마귀 소리만 들리는 곳, 그리고 한 세기도 못 살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군산들이 무엇을 그리도 간절히 갈망하고, 무엇이 그리도 소중한지 이 산중, 저 높은 암벽에까지 처처럼 덧대는 허세를 그려놓은 곳! 그러나 금강은 제 홀로 빼어나고, 스스로 우뚝해서 절없는 인간들의 작위를 한없이 누추해 보이게 하고, 언제보더라도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산을 내려 배를 타고 환혼넉 회색빛 잠전함을 뒤로 하며 나는 처연한 마음으로 감관에 나와 금강에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평생에 내 한물 간수하느라 허덕이던 세월 뒤켠에 그네를 상투적인 말 그대로 정발, 정발로 해방시켜 주어야 할 불쌍한 내 동포와 산하가 거기에 있다는 간절할 심정을 안고 나는 어두운 밤바다를 타고 남으로 왔다. 그리고 진정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사무기의 선두, 밀레니엄 OA의 새로운 장을 창조한다

S-printer



디지털 복사 인쇄기

- 해상도 : 400DPT
- 인쇄속도 : 분당 최대 150매
- 제판과 인쇄 : 20초 소요
- 축소 4단계, 확대 3단계
- ZOOM(50%~200%)
- 5색 컬러 인쇄(선택사양)
- ※ SP-3360/3370/3380/3390 제품은 '99년도 조달청 단가계약 예정



컬러드럼



컬러 잉크 마스터-셋

초고속 프린터

SIGNAL



※ PC와 연결로 원하는 자료를 편집, 수정, 축소, 확대에 원하는 내용으로 초고속(150매/분)프린터

INTERFACE KIT

본체

PC

- 편집
- 자료작성
- 자료수정
- 자료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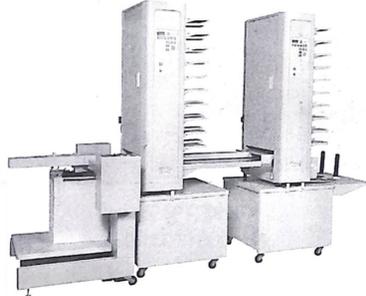
정합중철 시스템

EC-4500 + FOLDNAK 4/6/8

- 최대 10단 중철 제본(40페이지)
- 용지 적재 : 각 단 200매
- 크로스 적재(20°)
- 분당 60매 처리
- NCR지 정합 가능

EC-4500/EC-4500L

- 20단 정합(80페이지)
- 각 단 200매 적재
- 분당 60매 처리
- 대용량 적재기(LAGE STACKER)



레이저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모델명	호환기종	제조사(미국)
EPB-II (4V)	큐닉스 : 피카소 100/200/400, 큐레이저 SF-600 베리텍 : V LASER SF-450/550/650/750/800 HP : LASERJET-6L/6P/4000/4000T/5000/8000/800N/4MV 삼성 : SLB-6216V 신도리코 : LP-3160/3160N SOFT HOUSE : 하이퍼 OCR-100/200	Micro Solutions Enterpri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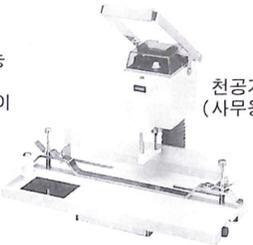
☎ 100-392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 2街 162-1
 本社 TEL : (02)2272-1871 (代) FAX : (02)2273-1554
 (02)2263-3141 (代) E-MAIL : samilco@netsgo.com

株式會社 三一事務機
 代表理事 成甫慶 (5기)

천공기

VS-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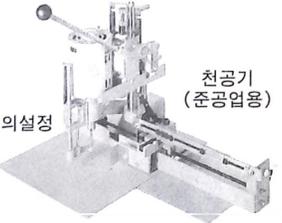
- 50m/m 천공가능
- 고정가이드
- 천공 칩 모음받이



천공기 (사무용)

D-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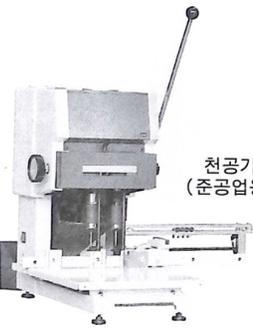
- 50m/m 천공가능
- 특수처리 DRILL BIT
- 4~6구멍 타공위치 임의설정
- 간격조정이 자유자재



천공기 (준공업용)

D-200

- 50m/m 천공가능
- 2구멍 동시 천공 (간격 무단조정)
- TABLE 이동식으로 간격 조정 용이
- 뛰어난 모터의 성능



천공기 (준공업용)

LA-4

- 50m/m 천공가능
- 4구멍 동시 천공
- 구멍간격 조정 용이
- 다양한 종류의 지질 천공



천공기 (공업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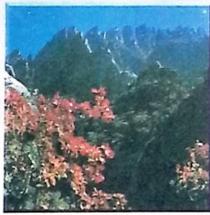
“
 중앙고속은 언제나
 고객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국내·해외 여행은 중앙고속으로!
 ”



고속사업	· 고속버스 400대	· 화물운송	(02)535-4122~3
정비사업	· 1급 자동차 정비공장		(0339)376-4302~4
관광사업	· 국내, 해외, 안보관광 · 금강산관광		(02)735-1235~7



관문점
 전화: 2266-3350



금강산
 전화: 735-1235



제3망글
 전화: (0348)954-0303



애기봉
 전화: (0341)988-6128

 (株) 中央高速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대표전화: 418-681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express.co.kr>